

강진서 버스킹 경연하고 캠핑하고

‘비긴어게인 in 강진’ 내달 5일 개막...이달 25일 온라인 예선 본선팀 4개 코스 시티투어 혜택...신현희·하림 등 축하무대도

“버스커 뮤지션 강진으로 오세요.” 강진군이 다음달 버스커 캠프 페스티벌 ‘비긴어게인 in 강진’을 개최한다. 전국 버스커 뮤지션들이 모여 버스킹 경연과 캠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오는 11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 1박 2일간 전남음악창작소 야외

공연장에서 열린다. 제7회 강진만 갈대축제 기간 중 열리는 국내 유일의 버스커 캠프 페스티벌은 최대 700만원 상금이 걸린 버스킹 경연대회와 함께 축하공연, 강진시티투어를 운영해 축제의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버스킹 경연은 오는 25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예선을 통해 20개 내외의 본선 진출팀을 선발한다. 페스티벌 기간인 11월 5일과 6일에 본선이 열려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각 1팀, 장려상 3팀 총 6개 팀을 선정해 상금을 수여한다.

참가를 원하는 뮤지션은 오는 23일까지 전남음악창작소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서 링크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나이·지역 제한없이 대한민국 음악인이려면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다. 장르에 상관없이 5분 내외 기성곡 또는 창작곡으로 도전할 수 있다.

MZ세대 대표 뮤지션 ‘오빠야’ 신현희, 월드뮤직뮤지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의 하림, ‘괜찮아 잘 될 거야 슈퍼스타 이한철 등 실력 있는 뮤지션이 축하공연으로 무대에 오른다. 본선 진출자를 대상으로 영광권역, 하평권역, 다산권역, 청자권역 4개 코스가 포함된 강진 시티투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축제를 통해 음악과 예술이 흐르는 감성여행 1번지 강진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음악을 사랑하는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 줄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정현준 전남음악창작소 소장은 “이번 버스커 캠프 페스티벌 경연에서 전남을 넘어 한류를 빛낸 스타 뮤지션이 탄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남도답사 1번지 강진 선포식. 지난 5일 강진읍 영랑로 특설무대에서 강진원 강진군수 비롯한 각계 각층 군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A로의 초대, Again 남도답사 1번지 강진 선포식이 열렸다. <강진군 제공>

화순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애물단지’

사업자 운영난에 사용료 3년째 못받고 年 임대료만 수 억...활용 고민

화순군이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화순군에 따르면 2011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을 위탁 운영하던 A사가 최근 3년간 경영난으로 정상 가동되지 못했다.

매년 1억2000만원씩 화순군에 지급해야 하는 시설사용료도 3년째 지급하지 못했다.

화순군은 더는 A사가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지난해 말 계약을 해지했다.

또 지급받지 못한 시설사용료 3억6000만원을 받

기 위해 압류 등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화순군은 A사를 대신할 다른 운영 업체를 모집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이 시설을 한약재 창고업 시설로 사용할지 제조업 시설로 사용할지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 시설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돼 화순을 포함한 전국 5개 지역에서 BTL(Build Transfer Lease) 방식으로 조성됐다.

민간회사인 B사가 100억원을 투입해 시설을 만든 뒤 화순군에 소유권을 넘기고, 군은 B사에 매년

8억1000만원씩 20년간 임대료를 지급하는 식이다.

임대료는 국비 50%, 지방비 50%로 충당하기로 했지만, 보건복지부는 2016년부터 시설 이용에 따라 국비를 차등해서 지원했다.

창고가 아닌 유통시설이어서 상대적으로 시설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데다 A사의 경영난까지 겹치면서 국비 지원이 줄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은 이 시설을 한약재 창고로 사용할 경우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보건복지부와 관련 내용을 논의 중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복지부와 논의를 통해 어떤 시설로 사용할지 결정을 먼저 한 다음 사업자 공모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담양군, 초등생 대상 ‘생명존중 교육’ 마쳐

담양군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명존중교육’을 마무리했다.

담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총 7개월 동안 5개 초등학교, 1321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생명존중 의식 함양을 위한 ‘생명존중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우리 주변 지켜야 할 생명’을 주제로 생명가면을 만들며 청소년들이 생명존중 의식을 느끼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청소년의 자살위험신호에 따른 대처방법을 교육함으로써 누구에게나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고 그 상황이 올 경우 반드시 주변 사람과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청소년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정서적인 지원과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고 있다.

관련 교육 신청 및 문의사항은 담양군청소년상담



복지센터(061-381-9845)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나주시 “임대 농기계 무료 세차하세요”

농기계임대사업소, 오늘부터 세차장 전면 개방

나주시가 농기계임대사업소 세차장을 농업인들에게 전면 개방한다.

나주시는 7일부터 민선 8기 시민과의 약속인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셀프 세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그간 농업인은 사업소에서 농기계를 임대 후 반납할 때에는 세척 작업이 이뤄져야 하지만 세척 장소나 방법이 마땅치 않고 비용이 발생하는 등 불편이 따라왔다.

또 제대로 세척하지 않은 농기계는 기계 수명을 단축시키고 안전 운행에 방해가 되기도 했다.

이번 세차장 무료 개방을 통해 임대 농기계 이용 편의 향상과 농기계를 보다 청결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차장은 흙과 오물을 쉽게 세척할 수 있는 고압세척기와 세차에 따른 오염수를 정화할 수 있는 오폐수 정화 시설을 갖추고 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내 세차장.

시는 연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흙, 퇴비 등 오폐수를 처리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농기계 세척에 고민했던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농업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 수요 증가에 맞춰 농기계 임대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가겠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함평군 관계자들이 샤인머스켓 베트남 수출을 위한 상차식을 갖고 있다. <함평군 제공>

함평 특화작물 샤인머스켓 베트남 첫 수출

홍콩·싱가포르 이어 세 번째

함평의 지역 특화작목인 샤인머스켓이 베트남에 첫 수출됐다.

함평군에 따르면 샤인머스켓 베트남 수출상차식이 지난 4일 김도의 전남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장과 함평군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보면 광암리에서 열렸다.

이번 베트남 수출은 지난해 홍콩, 싱가포르 등에 이은 세 번째 성과다.

수출 물량은 약 198kg으로 수출포도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한 평균 당도 18브릭스(Brix) 이

상의 고품질 상품이다.

함평군은 샤인머스켓 재배농가 증가로 인한 홍수 출하에 대비, 샤인머스켓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등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와 품질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또 수출 농가를 대상으로 농약 안전사용법, 알속기 요령 등 수출 기준에 맞는 고품질 포도 생산을 위해 체계적인 준비를 해왔다.

이상의 함평군은 “최근 국내 샤인머스켓 생산 농가가 증가하면서 공급량이 급증하고 있다”며 “함평 샤인머스켓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손해보험협회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